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과 사회맥락자원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분석: 영향요인과 유형별 삶의 만족도, 학업성취도, 문화적응스트레스 차이 검증

최가희*

Ⅰ 알기 쉬운 개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추세와 함께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가진 다양한 자원(언어능력, 이중문화역량, 또래지지, 교사지지,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인식)에 따른 집단유형을 알아보고, 성별과 연령, 부모의 양육방식이 이러한 구분을 예측하는지, 또한 구분된 집단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학업성취도, 문화적응스트레스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자원 수준이 낮은 집단, 평균인 집단, 높은 집단의 양상이 나타났고, 자원수준이 높은 경우 한국사회가 외국인에게 수용적이라고 지각하는 집단과 수용적이지 않다고 지각하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부모가 청소년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한다고 경험할수록 높은 수준의 자원을 보유한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해서는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높은 자원 집단에 속할수록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느끼고, 학업성취도 또한 높았으며, 한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개인의 문화적 역량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다문화 역량 함양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choigh@kmu.ac.kr

투 고 일 / 2024. 9. 8.

심 사 일 / 2024. 11. 15.

심사완료일 / 2024. 11. 26.

Ⅰ 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과 사회맥락자원에 따른 잠재계층을 도출하고, 성별, 연령, 부모의 양육태도 등의 예측변인이 집단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도출된 잠재집단에 따라 삶의 만족도, 학업성취도, 문화적응스트레스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이중문화역량으로 구성하였고, 사회맥락자원으로는 교사지지, 또래지지, 한국사회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APS) 2기 패널 3차 자료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문항에 모두 응답한 36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문화적 역량과 사회맥락자원에 따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예측변인의 영향력과 도출된 집단에 따른 결과변인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3STEP방법을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자원군',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 '평균자원군',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으로 집단이 분류되었다. 집단구분에 있어 예측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가 높을 때 자원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과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은 연령에 따라 달랐으며, 청소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보다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집단에 따라 삶의 만족도, 학업성취도, 문화적응스트레스에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과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은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낮은 수준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원을 문화적 역량과 사회맥락자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 차원의 문화적 역량 증진과 함께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청소년, 문화적 역량, 사회맥락자원, 잠재프로파일분석

I. 서 론

한국 사회의 구성원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2023년 한국 거주 외국인의 수는 약 2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9%를 차지하였고, 한국 대학의 외국인 학생수는 2021년 152,281명으로, 2010년 83,842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법무부, 2023; 한국교육개발원, 2019). 이러한 외국인의 증가추세와 함께 부모 중 적어도 한쪽이 이주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수는 2022년 299,4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가치관의 혼란과 진로 및 학업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해지기 쉬운 시기이다(강석임, 이운정, 정명숙,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의 발달적 과제로 인한 스트레스 이외에도 사회맥락 및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그 독특한 어려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박송주, 이보라, 2021).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에서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 및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오인수, 2014; 유진이, 2024). 이러한 차별 및 고립경험은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기 삶에 대한 만족도뿐 아니라 성인기의 삶의 만족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려나, 노충래, 2022).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은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를 경험하며, 이는 낮은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양계민, 장운선, 정윤미, 2020; 이진선, 오종철, 강영숙, 2021). 더불어 청소년기의 과제 중 하나인 진로요구에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봉환, 2011).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 특성이 장점으로 발휘되기보다는 삶의 질을 낮추고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 및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증가추세를 고려했을 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문화적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울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 특성이 자산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험을 이해할 때 스트레스나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된 취약성뿐 아니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감 증진과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요건, 즉 자원 중심의 관점이 필요하다. Sim, Song, Costa, Wen and Kim(2024)은 소수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는 병리적인 관점보다는 강점을 기반으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Schmees 외(2022)는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이민자, 주류집단의 청소년이

가진 공감, 낙관성, 자기통제 등 개인적 자원과 부모의 지지 및 사회와의 융합 등의 사회적 자원, 언어와 국가정체성 등의 문화적 자원을 비교하면서, 각 집단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자원도 있지만 집단에 따라 중요한 자원의 무게는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문화적 자원은 난민과 이민자, 주류집단의 청소년 사이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또래와의 융합은 난민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수집단 내에서도 고유하게 작용하는 자원의 종류가 다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고유하게 작용하는 자원들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Bronfenbrenner(1979)는 한 개인은 환경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므로, 한 개인을 이해할 때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가족, 지역사회 등 사회문화적 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체계는 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생리적 요인으로 구성되고, 미시체계는 이웃, 친구, 동료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경험을 의미하며, 외체계는 지역사회, 언론 등 간접적으로 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인 영향력, 거시체계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법률, 이념 등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가진 자원을 이해할 때 개인체계 차원의 자원 외에도 가족, 학교, 지역사회, 사회시스템 등의 자원을 통합하여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송주와 이보라(2021)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원을 개인적 자원과 미시체계적 자원으로 구분하고, 그 군집 양상에 따라 고교진학 유형이 달라진다고 제시하였다. 하여진(2021)은 다문화 청소년이 가정, 학교, 국가 차원에서 지각한 지지수준에 따른 양상을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사용하여 살펴보았고, 하위집단에 따른 인지, 정서발달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은 개인적인 측면부터 거시적인 측면까지 다차원적이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람 중심 분석방법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사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양한 자원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국내의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진로장벽이나 차별경험 등 심리적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거나(하여진, 2021, 2022; 허청아, 그레이스 정, 2018), 국가정체성이나 이중문화수용태도 등 문화적 역량의 양상에 대해 단일하게 살펴본 것(백종규, 염동문, 2018; 이정민, 정혜원, 2024; 장은애, 정현희, 2023; 정옥, 이수경, 2024), 적응에 대한 것(장유진, 2019; 이지연, 그레이스 정, 2019)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가진 자원의 양상과 그 영향력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모델의 개념을 가져와 다양한 차원의 자원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원을 개인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으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개인적 자원으로는 언어능력과 이중문화역량에 관심

을 가지고 문화적 역량이라고 명명하였다. 미시체계 및 외체계와 관련된 자원은 사회맥락자원으로 이름붙이고 또래와 교사의 지지 및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에 중점을 두고 파악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하여 문화적 역량과 사회맥락자원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집단 유형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학업성취도, 문화적응스트레스에서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원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집단 구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역량강화 및 성장을 도모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적 역량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부모의 출신국가나 한국 내 체류기간, 부모의 언어능력 등으로 인하여 언어능력이나 이주경험, 문화적 정체성 등에서 다양성을 가지는데, 이들 역량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도가 달라질 수 있다(유진이, 2024). 이 중에서도 언어능력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학업을 수행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으로,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 이들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 적응이 달라질 수 있다. 김윤희와 김현경(2020)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능력이 중학교 3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김우진, 정지아, 심태은과 이송이(201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언어능력이 자아탄력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준엽과 신형진(2024)은 한국어 구사가 또래 및 학교 차원에서의 배제뿐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의 배제로 이어질 수 있어, 유창한 한국어 사용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배제 가능성을 낮추는데 핵심적이라고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아니지만, 문화적인 적응을 경험하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성희와 박기환(2007)의 연구는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이 높은 삶의 만족도와 낮은 우울 및 불안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능력이 의사소통에 기본이 되는 도구임을 넘어서 대인관계 및 심리적 건강과 관련되는 중요한 역량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언어능력 외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두 문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두 문화를 수용했느냐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은 달라질 수 있다. 이중문화역량은 주류문화와 소수문화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및 효능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LaFromboise, Coleman & Gerton, 1993). Gusman, Safa, Grimm, and Doane(2024)은 라틴계 미국인 청소년의 이중문화역량이 긍정적인 적응 경험과 관련될 뿐 아니라 성인기의 우울 및 알콜중독의 보호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Carrera와 Wei(2014)는 이중문화역량이 라틴계 미국인 대학생의 우울을 방지하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아시아계 미국인, 라틴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Wei et al.(2010)은 대학생들이 소수집단으로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우울로 이르는 과정에서 이들의 지각된 이중문화역량이 보호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소수집단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소수문화와 주류문화 문화 모두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면 우울이나 다른 심리적 어려움이 방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우진 외(2017)는 언어능력과 함께 이중문화 수용성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중문화역량이 소수집단에 속하는 개인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덕목, 즉 중요한 문화적 역량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사회맥락자원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모형에서 한 개인의 측면을 넘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체계는 미시체계, 즉, 친구, 동료, 교사와의 경험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하여 사회적 역량과 다문화수용성 및 학업성취도, 성취동기,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고 우울을 낮출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민장배, 송진영, 2024; 전해숙, 전종설, 2020; 하여진, 2021; 홍성원, 진재찬, 유서구, 2024). 또한 정주미와 이동형(2021)은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나 친구의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긍정적인 발달로 이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교사와 교우로부터 경험하는 지지적인 관계가 중요한 발달적 과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교사와 또래의 영향력 이외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은 지역사회, 즉 이웃이다. 지역사회는 청소년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이 되는 영역으로, 친밀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대처자원을 가지게 되고, 보호받는다든든함을 경험하며, 이는 우울이나 다른 행동문제의 보호기제가 된다(Aneshensel & Sucoff, 1996; Bronfenbrenner, 1979; Jessor, 1993; Kliever et al., 2004; Shinn & Toohey, 2003). 안윤정과 김민아(2024)는 지역사회 전반의 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Matlin, Molock and Tebes(2011)는 심각한 우울을 경험하는 흑인청소년에게 있어 지역사회 연결성은 의미있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박송주와 이보라(2021)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이해할 때 개인과 사회맥락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이질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이웃 및 지역사회, 더 넓게는 사회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가 이들 청소년의 삶 및 발달과업을 촉진할 수 있는 자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지지수준과 더불어 한국 사회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수용적이라고 지각하는지, 즉, 한국사회의 문화적 수용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맥락자원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영향요인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문화적 역량과 사회맥락자원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기초적인 요인으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은 개인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령(이유신, 김한성, 2019)과 성별(이래혁, 채황석, 김효경, 2024)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이 어떻게 다른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원유형과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원유형 구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뿐 아니라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을 감독적 양육태도와 방임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는데, 감독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자녀와 충분히 논의하는 양육방식을 의미하는 반면, 방임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최소한의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자녀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양육방식을 의미한다(허묘연, 2004). 정주미와 이동형(2021)은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으며, 민장배와 송진영(202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교우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낮은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현과 조성희(2022)에 따르면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감독적 양육태도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통해 진로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연령 및 성별뿐 아니라 부모의 감독 및 방임적 양육태도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 및 사회맥락자원의 유형분류에 영향을 주는 변인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살펴보려고 하였다.

4. 결과요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 배경이 성장을 촉진시키는 자원으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자원 중심의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과 사회맥락자원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원이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도출된 자원 유형에 따라 실제로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청소년기 발달과업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질과 발달과업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학업성취도,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만족스런 삶은 연령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압박감 및 일상적 스트레스, 학교폭력 등으로 인하여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석임, 이윤정, 정명숙, 2020).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차별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들을 추가적으로 경험하고 있어 삶의 만족도가 더욱 낮을 수 있다(최려나, 노충래, 2022). 이러한 어려움과 관련하여 다문화 청소년이 적절한 자원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Schmees et al., 2022).

또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은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영난과 박분희(2023)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시기의 행복감이 중학교 2학년 시기의 높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는 행복과 관련될 뿐 아니라 청소년이 가진 다양한 심리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현상이므로(구자경, 2008),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가진 자원의 영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고려해볼 수 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양한 자원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문화적 적응 및 변용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것으로(Berry, 2006), 결혼이주여성 및 라틴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심리사회적 자원의 획득과 주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소수집단 구성원이 경험하는 스트

레스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권명희, 2011; Driscoll & Torres, 2013).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수집단의 구성원이 갖춘 다양한 자원양상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보유한 문화적 역량 및 사회맥락자원의 양상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사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과 사회맥락자원의 하위유형을 분류하고, 연령, 성별 및 부모의 방임 및 감독 양육태도가 도출된 잠재집단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능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도출된 잠재집단 분류에 따라 삶의 만족도, 학업성취도 및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 방 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2기 패널 중 3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MAPS 2기 패널조사는 2019년부터 새로운 패널을 구축하여 2023년까지 종단적으로 실시되었고, 자료분석 시점에는 2021년까지 측정한 3차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에 실시한 3차 데이터 응답자 총 2271명 중 모든 항목에 응답한 360명 청소년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의 성별은 남자 192명(53.3%), 여자 168명(46.7%)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12.22세이었다. 분석대상의 거주지역은 경기도 및 인천지역 172명(47.8%), 서울 68명(18.9%), 충청 및 강원권 52명(14.4%), 경상권 48명(13.3%), 전라 및 제주권 20명(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204명(56.7%), 어머니만 외국인인 경우는 139명(38.6%), 아버지만 외국인인 경우는 17명(4.7%)이었다. 연구대상자 중 241명(66.9%)은 자신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보통이라고 지각하고 있었고, 어려운 편이다가 87명(24.2%), 잘사는 편이다 21명(5.8%), 아주 어렵다 8명(2.2%), 아주 잘 산다가 3명(0.8%)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

(1) 언어능력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MAPS 2기 조사 3차년도 설문 중 연구 대상의 한국어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능력에 대해 각각 묻는 네 개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본인의 한국어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능력에 대해서 ‘전혀 못한다’(1점)에서 ‘매우 잘한다’(5점)까지 5점 척도에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어 능력 수준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어능력의 평균은 4.10, 표준편차는 0.87이었으며, 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5이었다.

(2) 이중문화역량

MAPS 2기조사 3차년도 설문 중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묻는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등이 있다.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에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두 문화에 대한 수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중문화역량의 평균은 2.95, 표준편차는 0.43이었으며,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78이었다.

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맥락자원

(1) 또래지지

또래로부터 받는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APS 2기 조사 3차년도 설문 중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관심과 이해와 관련된 3문항을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가 있다.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에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지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또래지지의 평균은 3.84, 표준편차는 0.69이었으며,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86이었다.

(2) 교사지지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APS 2기 조사 3차년도 설문 중 ‘우리 담임 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등 3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에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사지지의 평균은 3.87, 표준편차는 0.76이었으며,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 사회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MAPS 2기 조사 3차년도 설문 중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을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 두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에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사회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수용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문화수용성의 평균은 3.59, 표준편차는 0.74이었다.

3) 영향요인과 결과요인

(1) 부모의 양육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MAPS 2기 조사 3차년도 설문 중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에 해당하는 3문항과 방임에 해당하는 7항목을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감독의 경우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방임의 경우 ‘부모님(보호자)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으셔서 칭찬을 하시거나 혼내시는 일이 없다’가 있다.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에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감독과 방임수준이 각각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양육 중 감독의 평균은 3.21, 표준편차는 0.59, 방임의 평균은 1.65, 표준편차는 0.50이었다.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감독의 경우 .82, 방임의 경우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삶의 만족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APS 2기 조사 3차년도 설문 중 ‘나는 사는데 즐겁다’ 등 3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에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3.24, 표준편차는 0.56이었으며,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83이었다.

(3) 지각된 학업성취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APS 2기 조사 3차년도 설문 중 '학생의 지난 학기(2021년 1학기) 전 과목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요?'(1=매우 못한다~5=매우 잘한다)와 '학생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4=매우 만족한다)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학업성취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의 평균은 3.09, 표준편차는 0.67이었다.

(4) 문화적응스트레스

MAPS 2기 조사 3차년도 설문 중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9문항(예: '나의 부모님이 외국인이라고 친구들이 따돌린다')를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에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에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평균은 1.36, 표준편차는 0.44이었으며,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역량 및 사회맥락자원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으로는 언어능력과 이중문화역량을, 사회맥락자원으로는 또래지지, 교사지지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였고, 이들 변인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응답이 몇 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Mplu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군집분석과 유사하지만 측정오차를 통제할 수 있고, 분류의 정확성이 높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Magidson & Vermunt, 2002; Miller, Turner & Henderson, 2009).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

(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과 Entropy지수를 확인하였다. AIC, BIC, SABIC의 경우 수치가 낮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으로 해석하고(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Entropy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각 사례가 집단에 정확히 분류되었다고 해석한다(Nylund et al., 2007).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위한 적합도 지수로는 LMR(Low-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과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를 사용하였으며, LMR과 BLRT의 수치가 일관되지 않을 경우, 선행연구의 제안에 따라 BLRT를 우선으로 고려하였다(Nylund et al., 2007).

다음으로, 도출된 잠재계층에 대한 예측변인(성별, 연령, 부모의 양육유형)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잠재계층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학업성취,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BCH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결 과

언어능력, 이중문화역량 등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가진 문화적 역량과 또래지지, 교사지지,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지각 등 사회맥락자원의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문화적 역량과 사회맥락자원의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잠재집단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2개 집단부터 5개 집단까지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AIC, BIC, SABIC 등의 정보적합도 지수는 계층의 수가 늘어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LRT의 경우, 집단 수와 관계없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LMR의 경우 2집단과 3집단에서는 유의하였으나, 4집단과 5집단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ntropy지수의 경우 5집단에서 .810으로 4집단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5집단의 경우 집단별 사례수가 전체의 1%이하인 경우가 있었다. McCrae, Chapman and Christ(2006)는 객관적인 지표 외에도 집단별 사례수 비율과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단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4집단의 경우 정보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 사례수 및 해석가능성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4계층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1
모형적합도 결과

모형	AIC	BIC	SABIC	Entropy	LMR	BLRT
2계층	3526.648	3588.826	3538.065	.667	.0002	.0000
3계층	3476.246	3561.740	3491.945	.696	.0191	.0000
4계층	3445.199	3554.010	3465.180	.717	.2305	.0000
5계층	3394.671	3526.798	3418.933	.810	.0519	.0000

도출된 잠재계층의 구성 비율과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고, 프로파일 형태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먼저 계층 1은 전체 참여자의 10%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의 문화적 역량 및 사회맥락자원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저자원군’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2에는 전체 대상자의 32.8%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문화적 역량 및 사회맥락자원이 모두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으로 명명하였다. 3집단의 경우 41.4%가 소속되며, 모든 자원이 평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평균자원군’으로 명명하였다. 4집단은 전체의 15.8%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언어능력과 이중문화역량, 또래지지, 교사지지는 높은 수준이나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으로 명명하였다.

표 2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계층 1 (10.0%)		계층 2 (32.8%)		계층 3 (41.4%)		계층 4 (15.8%)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언어능력	2.733	0.226	4.365	0.083	4.067	0.122	4.478	0.237
이중문화역량	2.517	0.103	3.125	0.056	2.852	0.060	3.113	0.163
또래지지	2.921	0.112	4.158	0.078	3.607	0.215	4.341	0.214
교사지지	3.040	0.126	4.217	0.111	3.581	0.163	4.405	0.413
다문화수용성	3.038	0.064	4.456	0.067	3.234	0.093	3.092	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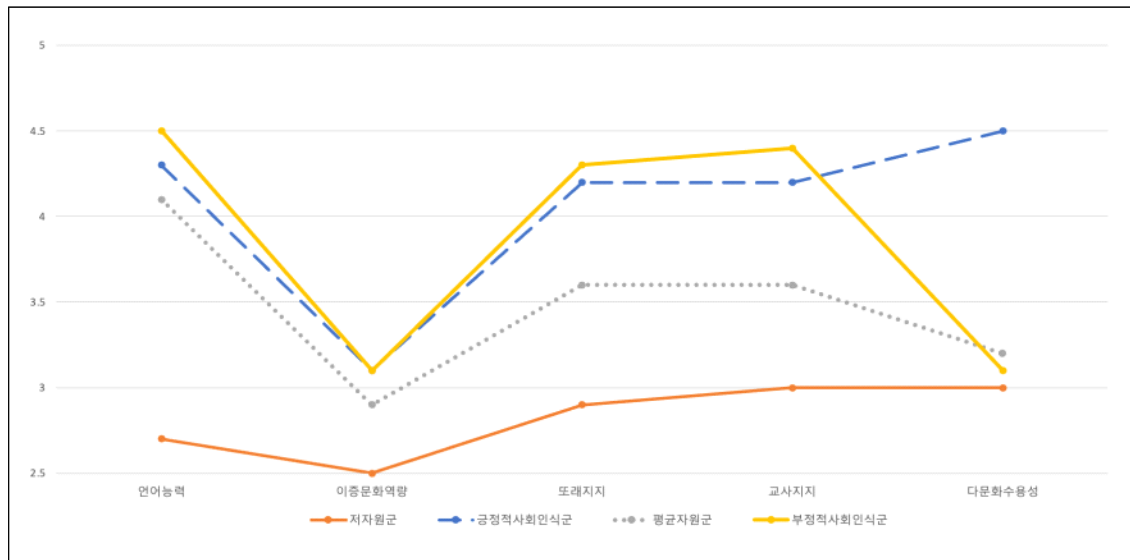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과 사회맥락자원의 잠재프로파일 형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과 사회맥락자원의 양상에 따른 유형 구분에 성별, 연령, 부모의 양육유형 감독과 방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Mplus 3STEP 방법을 사용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은 잠재계층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부모의 양육태도 감독 및 방임은 각 잠재계층 분류에 있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저자원군이나 평균자원군에 비해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부모의 방임은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을 저자원군 및 평균자원군과 유의미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과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의 성별 및 부모의 감독과 방임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보다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저자원군은 평균자원군 및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과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방임정도가 높을수록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이나 평균자원군에 비해 저자원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을수록 저자원군보다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균자원군과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을 비교한 결과, 부모의 감독 정도가 높고 방임 정도가 낮을수록 평균자원군에 비해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성별은 평균자원과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을 유의미하게

표 3

잠재계층 구분에 대한 예측변인의 영향력 분석 결과

기준잠재계층	비교잠재계층	예측변인	계수(B)	표준오차(SE)
고자원/부정적 사회인식군	저자원군	연령	-0.655	0.479
		성별	-1.021	0.573
		부모양육태도 감독	-1.916**	0.552
		부모양육태도 방임	1.096	0.840
고자원/부정적 사회인식군	고자원/긍정적 사회인식군	연령	-0.812*	0.376
		성별	-0.451	0.466
		부모양육태도 감독	-0.622	0.480
		부모양육태도 방임	-0.879	0.803
고자원/부정적 사회인식군	평균자원군	연령	-0.474	0.400
		성별	-0.684	0.523
		부모양육태도 감독	-1.782**	0.579
		부모양육태도 방임	0.295	0.986
저자원군	고자원/긍정적 사회인식군	연령	-0.157	0.460
		성별	0.570	0.458
		부모양육태도 감독	1.293**	0.424
		부모양육태도 방임	-1.974***	0.357
저자원군	평균자원군	연령	0.181	0.476
		성별	0.337	0.500
		부모양육태도 감독	0.133	0.268
		부모양육태도 방임	-0.801*	0.344
고자원/긍정적 사회인식군	평균자원군	연령	0.338	0.317
		성별	-0.233	0.309
		부모양육태도 감독	-1.160*	0.455
		부모양육태도 방임	1.174**	0.398

* $p < .05$. ** $p < .01$. *** $p < .001$.

구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부모의 높은 수준의 감독과 낮은 수준의 방임이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 및 사회맥락자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또한 높은 문화적 역량과 사회적 지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사회의 다문화수용 정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과 사회맥락자원의 양상에 따른 삶의 만족도, 지각된 학업 성취,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chi^2=32.734$, $p < .001$),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

군과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의 삶의 만족도가 평균자원군과 저자원군의 삶의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학업성취의 경우 집단 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chi^2=98.958$, $p<.001$).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과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의 학업성취가 가장 높았고, 평균자원군의 학업성취가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자원군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았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chi^2=70.796$, $p<.001$), 저자원군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평균자원군이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과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높은 수준의 문화적 역량 및 사회맥락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이 삶의 만족도가 높고, 자신의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지각하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과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은 삶의 만족도와 학업성취도, 문화적응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잠재계층별 삶의 만족도, 학업성취,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분석 결과

	계층1 저자원군		계층2 고자원/긍정적 사회인식군		계층3 평균자원군		계층4 고자원/부정적사 회인식군		overall test	집단차이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chi^2(df)$	
삶의 만족도	2.941	0.082	3.404	0.060	3.081	0.056	3.474	0.106	32.734(3)***	4, 2 > 3, 1
학업성취	2.292	0.096	3.358	0.069	2.947	0.062	3.432	0.112	98.958(3)***	4, 2 > 3 > 1
문화적응 스트레스	1.867	0.101	1.155	0.026	1.444	0.050	1.226	0.064	70.796(3)***	1 > 3 > 4, 2

*** $p<.001$.

V. 논 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과 사회맥락자원의 양상을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도출된 집단을 구분함에 있어서 성별, 연령 및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잠재계층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학업성취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과 사회맥락자원에 따라 4개의 잠재계층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원군’은 문화적 역량과 사회맥락자원 모두가 낮은 집단으로 전체참여자의 10%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은 문화적 역량과 사회맥락자원 모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참여자의 32.8%가 이 계층에 속하였다. ‘평균자원군’은 문화적 역량과 사회맥락자원 모두 평균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전체 참여자의 41.4%가 이 계층에 소속되었다.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은 높은 문화적 역량과 높은 또래 및 교사의 지지를 보고하지만 한국 사회의 문화적 수용성은 낮게 지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15.8%의 참여자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류경향은 박송주와 이보라 (2021)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박송주와 이보라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자원의 양상은 자원 결핍 집단, 자원 적정 집단, 자원 풍족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자원 풍족집단에서 가장 높은 일반고 및 특목고 진학률이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심리사회적 자원의 수준에 따른 구분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문화적 역량과 사회맥락자원의 수준이 높은 집단, 평균집단, 낮은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고자원의 경우 모든 자원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과 문화적 역량 및 또래지지, 교사 지지에서는 가장 높은 자원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으로 구분되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구분은 다문화 청소년의 자원수준을 이해할 때 개인의 문화적 역량 및 미시체계 이외에도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에 따른 차이가 주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직접적인 경험 외에 사회와 관련한 간접적인 경험 및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각 잠재계층을 구분하는 예측변인인 성별, 연령, 부모의 감독 및 방임 양육태도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연령의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청소년들이 부모가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필요한 양육을 제공한다고 지각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자원을 보유한 집단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맥락적 자원획득에 영향을 준다고 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민장배, 송진영, 2024; 유승현, 조성희, 2022).

또한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의 경우 부모의 감독과 방임수준 모두에서 저자원군 및 평균자원군과 유의미하게 달랐으나,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의 경우 부모의 감독 수준만이 구분되는 변인이었으며, 부모의 방임수준과 관련해서는 저자원군 및 평균자원군과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다. 부모의 방임이 외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안혜진, 2016)을 감안하면,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상호관계를 이끄는 양육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부분에서 미묘하게 방치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자녀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보다는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에 속하게 된다는 결과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연령은 11세에서 15세로 초기청소년기에서 중기청소년기의 범위에 해당한다. 청소년 집단은 연령에 따라 상이한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나타내는 이질성을 가지므로, 중기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비판적인 사고특징을 보이며, 부모의 양육방식 및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서 보다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이전에는 중요하게 간주하지 않았던 미묘한 차별이나 사회제도와 관련된 어려움을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가설적인 것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연령과 부모의 양육방식,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 등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각 잠재계층 간 삶의 만족도, 학업성취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계층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과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이 평균자원군 및 저자원군에 비해 삶의 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자원군보다 평균자원군의 학업성취도가 더 높았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경우, 저자원군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자원군이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과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수준의 문화적 역량 및 사회맥락자원을 가지고 있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 학업 등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성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문화적 차이와 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경험할 것이라고 보고한 선행 연구(최려나, 노충래, 2022; 함영난, 박분희, 2023; Driscoll & Toress, 2013; Schmees et al., 2022)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만,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과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은 삶의 만족도, 학업성취도 및 문화적응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추측하건대, 본 연구에서 알아본 삶의 만족도, 학업성취,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개인특성 및 미시체계와 보다 관련되는 변인일 수 있다. 즉, 한국 사회가 얼마나 소수자에게 열려있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더라도 자신의 삶에서는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여정에 놓인 과제들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 고자원/긍정적사회인식군과 고자원/부정적사회인식군의 차이는 한국사회라는 거시적인 체계 및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지각의 차이와 관련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체계가 다문화 청소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섬세하게 규명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MAPS 2차 패널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차별의 유형이나 심각성, 지지원의 도움 정도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된다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 및 사회맥락자원에 대해 더욱 확장된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자기보고식 질문방식의 경우, 자신이 지각한 관점이 편향되게 작용가능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 또래 및 교사 등으로부터 관찰된 자료나 암묵적 측정방식 등을 사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 역량 및 사회맥락자원의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 청소년 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료화한다면, 청소년 집단 전반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집단에 고유하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개인체계적인 관점이나 미시체계적인 관점을 단일하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원을 문화적 역량과 사회맥락자원으로 구분하고 그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원에 대한 관점을 구체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문화적 역량 및 사회맥락자원의 양상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학업성취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청소년기 발달과제 성취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개인 차원의 자원발달뿐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맥락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을 둘러싼 환경 또한 변화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개인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학교환경 및 지역사회의 변화 또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임, 이윤정, 정명숙 (2020). 청소년이 지각하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1(4), 5-31. doi:10.14816/sky.2020.31.4.5
- 구자경 (2008).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업성취의 관계.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 자료집**, 285-300.
- 권명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심리사회적 자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5(1), 275-302. doi:10.18397/kcgr.2011.15.1.275
- 김우진, 정지아, 심태은, 이송이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이중문화수용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8(4), 167-194. doi:10.14816/sky.2017.28.4.167
- 김윤희, 김현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 가족지지 및 한국어 능력과 학교적응의 종단적 발달경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367-396. doi:10.21509/KJYS.2020.06.27.6.367
- 민장배, 송진영 (2024).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방임적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교사관계와 교우관계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연구**, 13(1), 283-303. doi:10.30974/kaice.2024.13.1.12
- 박송주, 이보라 (2021).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 자원에 따른 군집과 고교진학 유형 차이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2(3), 209-234. doi:10.14816/sky.2021.32.3.209
- 백종규, 염동문 (2018).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1(1), 295-319. doi:10.15685/jms.2018.02.11.1.295
- 법무부 (2023). 출입국통계.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에서 2024년 8월 10일 인출.
- 안윤정, 김민아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역경경험과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와 지역사회 지지원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65, 61-84. doi:10.20993/jssw.65.3
- 안혜진 (2016).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종단연구 분석.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475-493. doi:10.22251/jlcci.2016.16.12.475
- 양계민, 장운선, 정윤미 (2020).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 오성희, 박기환 (2007). 이민자들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계 호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1(4), 55-69. doi:10.21193/kjspp.2007.21.4.003
- 오인수 (2014).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괴롭힘 피해 경험과 심리 문제의 관계: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5(4), 219-238. doi:10.15753/aje.2014.15.4.009
- 유승현, 조성희 (2022).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6(1), 203-223, doi:10.22446/mnpisk.2022.16.1.008
- 유진이 (2024).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 방안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2(2), 3-23.
- 이래혁, 채항석, 김효경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사회적 역량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6(1), 171-195.
- 이유신, 김한성 (2019).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자살위험비교연구. **학교사회복지**, 46, 167-185. doi:10.20993/jssw.46.7
- 이정민, 정혜원 (2024).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잠재프로파일 분류 예측요인 및 결과변인 차이 검증. **한국교육**, 51(1), 5-34.
- 이준엽, 신형진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와 사회적 배제. **한국청소년연구**, 35(3), 91-111. doi:10.14816/sky.2024.35.3.91
- 이지연, Grace Chung (2019).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적응 유형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2(2), 85-114. doi:10.14431/jms.2019.06.12.2.85
- 이진선, 오종철, 강영숙 (2021).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성장 모형을 통한 종단연구. **보건사회연구**, 41(4), 243-261.
- 장유진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학업성취의 차이. **글로벌교육연구**, 11(4), 26-51.
- 장은애, 정현희 (2023).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잠재프로파일 전이양상과 영향요인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6(3), 139-160. doi:10.14328/mes.2023.9.30.139
- 전혜숙, 전종설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및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8), 223-255. doi:10.21509/KJYS.2020.08.27.8.223
- 정옥, 이수경 (2024).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영향요인 탐색 및 집단에 따른 우울과 학교적응의 차이. **청소년시설환경**, 22(3), 46-58. doi:10.55063/KIYFE.2024.22.3.5
- 정주미, 이동형 (2021).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 궤적: 잠재계층 분류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영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2(1), 57-85, doi:10.14816/sky.2021.32.1.57

- 조봉환 (201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습흥미와 진로발달. **진로교육연구**, 24(2), 219-245.
- 최려나, 노충래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직렬다중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3(4), 59-87. doi:10.14816/sky.2022.33.4.59
- 하여진 (2021).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습흥미와 진로발달. **다문화교육연구**, 14(3), 1-18.
- 하여진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인식수준에 따른 잠재집단분류 및 진로태도 차이분석: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다문화교육학회**, 15(3), 1-23. doi.org/10.14328/mes.2022.9.30.1
-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국내 외국인유학생 현황**.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2&cd=5541&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205&uppCd1=010205&uppCd2=010205&flag=A에서 2024년 8월 10일 인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개요**. <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221&siteId=null>에서 2024년 8월 10일 인출.
- 함영난, 박분희 (2023). 청소년의 행복감과 협동 의식 및 학업성취 간 인과관계 종단분석: 성별 간 다집단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4(2), 5-32. doi:10.14816/sky.2023.34.2.5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허청아, 그레이스 정 (2018).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경험,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의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가정과삶의질연구**, 36(4), 177-190. doi:10.7466/JKHMA.2018.36.4.177
- 홍성원, 진재찬, 유서구 (2024).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88(2), 127-161. doi:10.15300/jcw.2024.88.1.127
- Aneshensel, C. S., & Sucoff, C. A. (1996). The neighborhood context of adolescent mental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4), 293-310. doi:10.2307/2137258
- Berry, J. W. (2006). Contexts of acculturation. In D. L. Sam & J. W. Berry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pp. 27-42).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10.1017/CBO9780511489891.006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doi:10.2307/j.ctv26071r6
- Carrera, S. G., & Wei, M. (2014). Bicultural competence, acculturative family distancing, and future depression in Latino/a college student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3), 427-436. doi:10.1037/cou0000023

- Driscoll, M. W., & Torres, L. (2013). Acculturative stress and Latino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 of behavioral and cognitive resources. *Cultural Diversity & Ethnic Minority Psychology, 19*(4), 373-382. doi:10.1037/a0032821
- Gusman, M. S., Safa, M. D., Grimm, K. J., & Doane, L.D. (2024). Contextualizing bicultural competence across youths' adapta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Prospective associations with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A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12*(2), 320-343. doi:10.1177/21677026231159667
- Jessor, R. (1993). Successful adolescent development among youth in high-risk settings. *American Psychologist, 48*(2), 117-126. doi:10.1037/0003-066X.48.2.117
- Kliewer, W., Cunningham, J. N., Diehl, R., Parrish, K. A., Walker, J. M., Atiyeh, C., Neace, B., Duncan, L., Taylor, K., & Mejia, R. (2004). Violence exposure and adjustment in inner-city youth: Child and caregiver emotion regulation skill, caregiver-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neighborhood cohesion as protective factor.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3*(3), 477-487. doi:10.1207/s15374424jccp3303_5
- LaFromboise, T., Coleman, H., & Gerton, J. (1993).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3), 395-412. doi:10.1037/0033-2909.114.3.395
- Magidson, J., & Vermunt, J. (2002). Latent class models for clustering: A comparison with K-means. *Canadia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0*(1), 36-43.
- Matlin, S. L., Molock, S. D., & Tebes, J. K. (2011). Suicidality and depression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The role of family and peer support and community connectedness. *Th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1), 108-117. doi:10.1111/j.1939-0025.2010.01078.x
- McCrae, J. S., Chapman, M. V., & Christ, S. L. (2006). Profile of children investigated for sexual abuse: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4), 468-481. doi:10.1037/0002-9432.76.4.468
- Miller, H. A., Turner, K., & Henderson, C. E. (2009). Psychopathology of sex offenders: A comparison of males and female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6*(8), 778-792. doi:10.1177/0093854809336400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doi:10.1080/10705510701575396
- Schmees, P., Braig, J., Nilles, H., Kerkhoff, D., Demir, Z., Rueth, J.-E., Lohaus, A., & Eschenbeck, H. (2022). Well-being and resources of minors with refugee background in comparison to minors with migration or native background. *Europ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9(1), 3-14. doi:10.1027/2512-8442/a000099
- Shinn, M., & Toohey, S. M. (2003). Community contexts of human welfar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427-259. doi:10.1146/annurev.psych.54.101601.145052
- Sim, L., Song, J., Ip, K. I., Costa, C. N., Wen, W., & Kim, S. Y. (2024). Mexican-origin adolescents' cumulative strengths predict baseline and longitudinal changes in self-growth outcomes. *Developmental Psychology*. Advance online publication. doi:10.1037/dev0001720
- Wei, M., Liao, K. Y.-H., Chao, R. C.-L., Mallinckrodt, B., Tsai, P.-C., & Botello-Zamarron, R. (2010). Minority stress, perceived bicultural competence,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ethnic minor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7(4), 411-422. doi:10.1037/a0020790

ABSTRACT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multicultural competences and socio-contextual resources i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Testing impact factors and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acculturative stress

Choi, Ga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latent profiles based on multicultural competences and socio-contextual resources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test for the effects of age, gender, and parenting style in determining the latent classes. We also examined whether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acculturative stress according to the latent classes. We used 360 participants who had responded to all survey items from the 3rd year data of the 2nd panel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The result of a latent profile analysis showed 4 latent classes; a low resource group, an average resource group, a high resource/positiv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perception group, and a high resource/negativ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perception group. 3STEP methods were used to test the effects of predictor variables in determining latent classes and to examine any differences in outcome variables, depending on latent classes. The results showed that adolescents' ages, parents' abandonment, and parents' supervision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the latent profiles. Classes differed in terms of life satisfac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acculturative stress of adolescents. This stud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socio-contextual variables in understanding the quality of lif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Key Words: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competences, socio-contextual resources, latent profile analysis

* Keimyung University Psychology Department, Assistant Professor